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성서교회 담임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 종합터미널에 내렸다가 오랜만에 서점에 들렀다. 기판대에 누워있는 책 중에 제목이 눈에 띄어 들어왔다.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주저 없이 계산대로 가져갔다. 이 책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김민성씨가 지은 책이다. 김민성씨는 춤 외에 잘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내대는 것이었다. 말을 많이 하면서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 하면 어느 날, 친구가 그랬다. “민성아, 내가 진짜 고민하다 말하는 건데 너는 말만 안하면 진짜 편찮을 텐데 왜 굳이 입을 열어서 네 이미지를 스스로 망치는 거야” 충격이었다. 그 뒤로는 무용보다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민망에도 불구하고 보형설계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걱정과는 달리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어~ 이게 되네. 말투 하나

말투만 바뀌도

바뀌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했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제목이 총 87개. 몇 가지 눈에 띄는 소제목들을 소개하면 ① 직선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곡선으로 이야기 하라. ② 높은 말이 아닌 진솔한 말을 하라. ③ “그런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사용하라. ④ 세련되게 거절하는 법. ⑤ 말끝을 흐리지 마라. ⑥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⑦ 까칠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는 한 마디. 제목이 참 좋았다. 그리고 깨달는 것은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과 슬기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산 넘어 산이구나였다.

그 중에 “까칠한 사람의 마음도 녹이는 한 마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무용을 전공했는데 무용 전공자들은 선배들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했다. 그런데 까칠한 선배가 유독 한 후배에게 잘해주더라는 것이다. 보통 까칠한 선배가 화를 내면 “또 도졌다” “완전만 잘하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한 번 받아버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까칠한 선배에게 사랑받는 후배가 있었다. 이 후배는 선배가 까칠하게 하면 “선배님, 왜 오늘 이렇게 화가 났어요. 후배가 뭘 잘못했나요?”

아~ 어떻게 다시 깨달는 것은 말이 중요하구나. 사랑도 마음도, 화해와 다툼도, 하나 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도 모두 말에서 시작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에너지 좀 문제가 필요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심히 미워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의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포상하여 가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한글개역. 삼상19:4) 여기서 ‘포상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브’(선하게, 좋게, 기쁘게)다. 개역개정본은 포상하여를 ‘칭찬하여’로 공동번역은 ‘부활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뒷면에는 아버지 앞에서도 다윗을 포상하여 말하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다.

정대기 특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은 6.25 때 남편 잃고 딸과 아들을 키웠는데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잘라 보냈다. 아들은 결혼 하자마자 며느리와 놀러 다니더니 1년이 지나자 딱 두개비 같은 손주를 얻어놓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런데 권사님이 놀아 악하다 보니 손주가 너무 무거워 몸살이 나서 악을 먹으면서 손주를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고 불라쥬도 너무 불라쥬라는 생각에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4시 30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도 11시 넘어 들어오니 먼저 주무시고 아들은 우유를 먹이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생전 안 해 본 욕을 혼자 해댔다는 것이다.

손주에게 우유를 주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우는데 11시 30분이 지나도록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11시 30분이 넘어서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어머니! 어머니!” 불러보고 대답이 없자 주무시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가 침묵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며느리가

“여보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있을까! 나는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억울하고 분해서 울고 있던 그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 “위메 저 녀이...” 이어서 아들이 그러다. “당신도 그래?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우리 어머니 살아온 것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종종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올 때가 있어.” “어메 저 새끼도...”

그 소리를 들은 후에는 억울하고 분한 눈물이 뜨거운 눈물로 바뀌었다. 다음 날 권사님은 딱 두개비 같은 손주를 안고 몸네를 3시간 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서 들었는데도 몸살이 나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권사님의 생명을 바꿔 버린 것이다. 그렇구나 말투만 바뀌도, 단어만 바뀌도 말이 생명이 되는 것을.

아들이 20여년만에 형과 화해를 할 때 아무 말도 없이 진심으로 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요”(창33:10) 어떻게 형님의 얼굴이 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될 수가 있는가? 사랑을 담은 최고의 아무 말이지만 그 아무 속에는 살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형님과 화해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도 말투만 바뀌보자.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8)

목회산책



“신이 흔들려선 날.”

땅이 변하든지 신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신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로다(시 46:2-3).” 불과 한달 전 네팔 땅탕 리를 봉우리 인근에서 거대한 방화와 암반이 붕괴해 시속 180km의 토석류가 계속을 따라 쏟아져 마을과 도로를 집어삼켰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NDRMA)의 최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410명, 실종자는 6,144명에 달하며 도

전까지도 “벼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마 24:38-39)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홍해와 만나의 이적을 보고도 얼마 안가 “그 행하신 일을 잊었도다”(시 106:13)라고 시편 기자는 탄식한다.

이는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대형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인간은 늘 똑같이 반응한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은 임박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이전부터 지난 오늘날은 더욱더 종말이 임박했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한다. 아직은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우리는

지 않는 나라만 영원히 남는다. 문제는 그 진동이 아무리 커도 있어버리는 존재인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반복되는 국제 사회의 디딘 기후 대응, 해마다 세워지고 지켜지지 않는 서약들 역시 근본적으로 이 망각의 죄성과 무관하지 않다. 기억했다면 되풀이하지 않았을 실패를 우리는 잊었기에 다시 반복한다. 그럼에도 성경은 인간의 각성이나 기억력에 세상의 회복을 맡기지 않는다. 궁극적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서 모든 문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나”(계 21:3-4)라는 그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소망은 오늘 우리의 망각과 무책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 존재인지 알기에, 더욱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 신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낙관이 아니라 신이 무너질 때조차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그 땅 위에 있지 않다는 약속이다. 다만 이번만큼은 이 흔들림을 너무 빨리 잊지 않기를, 이 사건이 우리를 깨우는 표적으로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 주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계 2:29).



이한규 목사
들꽃성서교회 담임
시인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8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영광과 화락이라.”(골4:17).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이미 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학교, 직장, 사회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사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날마다 자기를 무너하여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써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편성권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편성권: 출판권/비즈니스 / 비문주지음)

부흥회를 하면 부흥이 됩니다

김병훈목사 초청 장성 남경산기도원 연합 구국성회

주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 27일(목) 오전까지

시간: 새벽 5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구분: 8.24 (월) 8.25 (화) 8.26 (수) 8.27 (목)

목장: 9개 목장 (장성, 남경산,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용남 목사 / 문의: 010-3007-9142

김병훈목사 초청 경주 호명산기도원 연합치유성회

주제: 내가 보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6)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오후 ~ 17일(목)

시간: 새벽 6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목장: 9개 목장 (경주, 호명산,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용남 목사 / 문의: 010-3007-9142

김의식 목사 초청 목포중앙기도원 연합 부흥성회

주제: 내 영혼에 불을 붙이라! (사 61:1)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일(목)

시간: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7시

목장: 9개 목장 (목포, 중앙,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양곡)

주최: 대한(大韓)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최용남 목사 / 문의: 010-3007-9142

대한(大韓)부흥사협회 집회 사역 일정표			
날 짜	강 사	장 소	
27.01.04~09	대표회장: 최용남 목사	목포중앙기도원	
26.12.07~10	주 강 사: 김병훈 목사	늘성기독교교회	
26.11.28~01		충주 대배석기도원	
26.10.12~14	9명 대회장 박병준, 김병훈, 황길현, 정찬경, 이준복, 이상열, 서철준, 송신영, 최용남, 박병준	여수기도원	
26.09.28~01	7명 대회장 조한우, 김의식(3회), 김병준, 정찬경, 조용희, 최용남, 조한우, 배성찬	목포 중앙기도원	
26.09.14~17	9명 대회장 이상열, 김병훈, 김병준, 조용희, 배성찬, 이상열, 송신영, 김병준, 최용남, 조한우, 마영수	경주 호명산기도원	
26.08.24~27	9명 대회장 정찬경	장성 남경산기도원	
26.08.17~20	9명 대회장 배성찬	목포 중앙교회	
26.07.06~09	9명 대회장 조한우	인천주시광기도원	
26.06.22~25	9명 대회장 서재철	근심자기도원	
26.06.08~11	16명 대회장 손태홍	대부도 열림중앙관	
26.05.25~28	9명 대회장 박상욱	고창 은혜기도원	
26.04.27~30	9명 대회장 이진구	충주 대배석기도원	
26.03.23~26	9명 대회장 리정기	목포 중앙기도원	

대한(大韓)부흥사협회(Korea Society of Reconstruction and History) 집회문의: 010-3007-9142, 010-3250-8542

모든 집회는 CYN(최용남)TV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후에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